

사재 털어 독심 인수... '제2의 창업' 재도약 날개 폈다

박삼구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마무리

채권단과 경영권 지분가격 줄다리기...우여곡절 끝에 되찾아

금호타이어 되찾기 숙제...빌린 돈 많아 유동성 위기 재연 우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내년 창업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아 그룹 재건에 성공했다. 그야말로 '독심'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1946년 4월7일 17만원의 자본금으로 미국산 중고택시 두 대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1948년에는 광주여객을 설립, 버스운수에 진출했고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등을 잇달아 설립하며 1973년에는 6개사로 본격적인 그룹 체제를 확립했다.

그들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적 항공사로서 발돋움하면서 계열사가 수십여개로 늘었다. 고 박인천 창업회장이 1984년 세상을 떠나자 첫째 아들인 고 박성용 명예회장이 뒤를 이었고 1996년 둘째 동생인 고 박정구 회장이, 2002년 셋째인 박삼구 회장으로 형제경영 체제가 이어졌다.

2006년 창립 60주년 박삼구 회장은 "2066년에는 100만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대그룹으로 성장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같은해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삼구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재매각 과정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2009년 7월 "아무나 형제경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동생을 해임하고 자신도 명예회장으로 퇴진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같은해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인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합의에 따라 두 형제는 경영일선으로 복귀했고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재매각, 계열사인 금호렌터

카와 금호고속 매각 등 경영 정상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금호석유화학이 2012년 12월 자율협약에서 가장 먼저 졸업했다.

2014년 10월에는 금호산업이 채권단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동시에 워크아웃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12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가 각각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올해 들어 박 회장은 금호산업 채권단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50%+1주)을 사들이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금호산업만 인수하면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를 모두 가져올 수 있기에 채권단이 금호산업을 매물로 내놓자 많은 기업이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세계·문화예술계, 국·내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해온 박삼구 회장 역시 본업에 참여기업은 호반건설 한 곳에 그쳤고, 그마저 채권단 기대에 못미치는 가격을 내놓아 유찰됐다.

이후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이 있는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 경영권지분(50%+1주) 가격을 놓고 수차례 밀고 당기기를 했다.

채권단이 처음에 1조218억원을 제시

하자 박 회장은 6503억원을 불렀고 박 회장이 다시 7047억원을 제시하자 채권단이 7228억원으로 최종 조정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24일 채권단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인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룹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들은 재건 과정을 거치며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과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그룹(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등)으로 갈라졌다.

이달 13일에는 대법원 판결로 그룹 분리가 확정돼 양측은 독자경영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금호산업 인수로 그룹 재건작업의 큰 틀은 완성했지만 금호타이어와 금호고속을 되찾는 작업이 숙제로 남았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으로 채권단이 42.1% 지분을 가지고 있어 금호산업과 비슷한 절차로 따로 인수해야 한다.

금호고속은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다가 올해 6월 사들였지만 석달만에 컨서스HKB 사모펀드에 되판 상태다. 다만 금호터미널이나 금호터미널이 지정한 사람이 2년3개월 안에 주식을 되살 권리(콜옵션)가 있다는 조건을 붙

여 되찾을 장치를 남겨뒀다.

하지만 빌린 돈이 너무 많다보니 '인수 이후'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비용과 투자자 수익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악몽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

■ 그룹 재건 일지

- ▲2006.11=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건설 인수
- ▲2009.12=유동성 위기로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추진 발표
- ▲2010.2=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추진
- ▲2010.10=박삼구, 그룹 회장으로 복귀
- ▲2011.7= 대한통운 C그룹에 재매각
- ▲2012.6=금호고속 매각
- ▲2013.11=박삼구, 금호산업 대표 복귀
- ▲2014.10=금호산업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
- ▲2014.12=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졸업,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 ▲2015.11=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매각 공고
- ▲2015.4=호반건설, 금호산업 본업철

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 거래관계 있는 기업들이 '백기사'로 참여하면서 앞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2006.11=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건설 인수
- ▲2009.12=유동성 위기로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추진 발표
- ▲2010.2=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추진
- ▲2010.10=박삼구, 그룹 회장으로 복귀
- ▲2011.7= 대한통운 C그룹에 재매각
- ▲2012.6=금호고속 매각
- ▲2013.11=박삼구, 금호산업 대표 복귀
- ▲2014.10=금호산업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
- ▲2014.12=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졸업,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 ▲2015.11=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매각 공고
- ▲2015.4=호반건설, 금호산업 본업철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두달 연속 증가

은행 대출채권 잔액 전월보다 11조4천억 늘어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 29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51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4000억원(0.8%)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은 1조8000억원 늘어난 186조4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한 580조3000억원,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 늘어난 555조5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유통과 잔액 증감분 1조2천억원 포함하면 11월 증가액이 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74%로 전월(0.70%)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9월 말

0.66%까지 떨어졌다가 10월 말에 이어 2개월째 오르는 것이다. 연체율 상승은 11월에 발생한 신규 연체액(1조8000억원)이 정리액(1조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연체채권 잔액은 10월 9조3000억원에서 11월 1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과 비교하면 0.15%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 11월 말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은 0.99%로 전월(0.97%)포인트 올랐다. 9월 말 0.86%를 저점으로 10월 말 0.92%에 이어 두달째 상승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1.02%로 전월(0.98%) 0.10%포인트, 중소기업대출은 0.98%로 0.0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연립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6.31 (+2.25)
- ▲ 코스닥 673.22 (+21.17)
-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2)
- ▲ 환율 (USD) 1169.60원 (+4.20)



하이트진로는 지난 28일 KBS 광주방송총국 총국장실에서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8차 모금액 2047만6160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2천만원 기탁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8차 조성금 2047만6160원 기탁식을 28일 오전 KBS 광주방송총국 총국장실에서 강경기 KBS광주방송 총국장,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장, 정재덕 하이트진로(주) 호남본부장, 성동욱 하이트진

로(주) 광주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3년 1월부터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3억원 달성 시 까지 행사를 진

행한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조성한 2억원의 광주사랑기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데 이어, 이번엔 다시 3억원의 조성금을 목표로 201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7차에 걸친 조성금 1억4605만 220원을 기탁했고, 오늘 8차 조성금 2047만6160원을 기탁해 누적 기탁금이 1억6652만6380원에 달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한농연전남협 협력 파트너십 협약

'우리는 형제'라는 슬로건으로 나눔 경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보해양조(사장 채원영)가 한국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회장 김승식)와 상호 정진 협약을 가졌다.

보해양조는 28일 오후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보해양조(주) 채원영 사장, 송석주 대외협력실장, 한국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 김승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농업인의 공동 활동과 공익적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해양조(주)가 한국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와의 상호협력파트너십을 통해 전남지역 농업경영인들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진행됐다.

한편, 보해양조(주)는 최근 부라더리(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 17.5도인 '잎새주부라더리'와 알코올도수 3도인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선보인 탄산주 '부라더리#소다', 알코올 도수 12도 복분자 과음을 첨가한 소주 '복분자 부라더리' 등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원의사 27~45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층 70m 허니문 B/D 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백범 나루터 500m 안주사

大山프리모기발